

# 무안군, 촘촘한 지원망으로 치매 걱정없는 사회 조성

## 6월 기준 관내 3017명 등록·관리 안심센터 신청사 이전 접근성 ↑ 인식개선 등 치매관리 서비스 지역민 동참 사업 활성화 노력

무안군이 '치매 걱정 없는 행복 무안' 조성을 위해 치매돌봄 지원체계 강화에 나섰다.

22일 무안군에 따르면 최근 고령화로 치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무안군은 6월 기준 3017명의 치매인구(치매 환자 2089명, 경도인지장애 604명, 인지저하자 324명)를 등록·관리하고 있다.

우선 치매안심센터를 지난 4월 개정한 보건소 신청사 내로 이전하며 접근성을 높이고 최신 시설을 활용해 치매조기검

진, 치매 환자지원, 치매가족지원, 치매 프로그램운영, 치매인식개선 사업 등 치매조기 발견부터 맞춤형 치매관리 서비스 제공까지 군민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사업 추진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2024년 1월부터 현재까지 5272건의 조기검진을 시행했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정상군,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 치매 환자 등 4개의 대상자군으로 나누어 치매를 조기 발견하여 관리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치매조기검진을 위해 60세 이상 지역 주민에게 우편으로 치매검진의 필요성을 안내하고 있으며 검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치매안심센터 뿐만 아니라 보건지소 8개소, 남양건강생활지원센터 1개소와 보건진료소 11개소 등 총 21개소에서 1차 선별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 사업으로 마을 경로당 및 복지시설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선별검사를 시행하고 심층검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치매협력병원인 무안병원과 연계해 감별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6월 말 기준 2857회 치매 치료 관리비를 지원했다. 이 사업은 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약을 복용하는 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 환자에게 월 3만원(연간 36만원 이내 실비) 상한으로 지원한다.

올해 7월부터는 중위소득 121%~140% 이하 치매 환자에게도 치매치료관리비를 추가 확대 지원해 증상 악화를 방지하고 치매 환자의 경제적 부담감을 완화한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증치매 환자에게 전문적인 인지 자극 프로그램을 제공

해사회적 접촉을 증진하고 치매 환자를 보호해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치매안심센터 개소 이후 현재까지 치매 고위험군(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 774명을 대상으로 126회의 인지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치매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발병시기를 늦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

무안군은 치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치매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켜 치매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을 지역 사회와 함께 만들어 가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치매관리가 개인이나 가족의 노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치매 환자·가족·지역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치매 걱정 없는 행복 무안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김행언 기자

## 캘리그래피 주말 프로그램 운영 신안군 저녁노을미술관

신안군 저녁노을미술관은 주말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누구나 쉽게 배우는 캘리그래피'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청 조건은 신안군에 주소를 둔 성인 대상으로 모집 기간은 오는 31일까지 9일간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캘리그래피 재료를 이해하고 농담과 필압 조절 방법을 익히며 책갈피, 거울, 압화 액자 등 나만의 캘리그래피 작품을 제작하는 수업이다. 교육프로그램 결과물은 자은면 둔장마을미술관에서 약 3주간 전시될 예정이다.

운영 기간은 8월3일부터 9월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성인 10명을 모집한다.

프로그램 진행은 신안군 신의도 출신으로 현재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수목 캘리그래피 강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김미덕 작가가 진행한다.

신청 방법은 전화(061-240-5441) 또는 카카오톡 신안군 저녁노을미술관을 검색 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할 수 있다.

더 많은 프로그램 소식은 '신안군 저녁노을미술관' 카카오톡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아름다운 한글과 미적 체험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경험을 다양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안=홍일갑 기자

## 불무공원 어린이 물놀이시설 개장 무안군, 8월25일까지 무료 운영

무안군은 본격적인 무더위와 여름방학을 맞아 8월25일까지 불무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9일 개장한 불무공원 물놀이장에는 조합놀이대, 워터드롭, 바닥분수 등 다양한 물놀이시설과 탈의실, 그늘막 등 편의시설을 설치했으며 어린이 안전을 위해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한다.

군은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장을 위해 배수로 정비, 여과기 여재 교체, 수질 검사, 저수조 청소 등 개장 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다. 또한 올해는 이용객들이 쉴 수 있는 평상과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였다.

운영시간은 평일은 오전 11시~오후 5시, 주말은 오전 10시~오후 5시이며 매주 월요일과 우천 시에는 휴장한다.

무안=김행언 기자



진도군 관계자들이 지역 농가를 방문해 작물 발육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진도군 제공



## 무안군 몽탄면, 도로변 정비 쾌적한 도로 환경 제공

무안군 몽탄면은 휴가철을 맞아 차량통행량이 많은 군도 10호선(달산수원지~월선리)·34호선(사창삼거리~파군교) 일대에 도로 정비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여름 장마 이후 도로 주변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위험 수목으로 교통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잡목 제거·제초 작업과 쓰레기 수거를 진행했다.

작업이 어려운 도로법면의 잡목 제거를 위해 굴삭기 부착용 제초기 등 중장비를 투입했으며 도로변 적치물도 함께 정비함으로써 도로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였다.

강성우 몽탄면장은 "지속적인 도로 정비를 통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무안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지역 이미지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 진도군, 장마철 영농현장 기술 지원 강화

진도군이 덥고 습한 날씨로 인해 고추 탄저병과 담배나방 피해가 우려된다며 농가들의 적극적인 예방을 당부했다.

22일 진도군에 따르면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발생률이 가장 높은 고추 탄저병은 7월 중순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장마기를 거쳐 8~9월에 급격히 증가한다.

병균은 비바람에 의해 다른 열매에 2차

감염을 일으키므로 병든 열매는 발견 즉시 제거해 소각하고 재배지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담배나방은 어린 벌레가 주로 열매 속을 파고들어 작물 수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초기 방제가 중요하다.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2세대 성충이 발생하는 7월 중하순에 집중적인 방

제가 필요하다.

탄저병과 담배나방은 발생 시기가 비슷해 동시 방제와 예방적 약제 살포가 매우 중요하므로 비가 오기 전후, 적용약제를 10일 간격으로 골고루 문도록 등록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예찰을 통한 조기 발견과 적기 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기술 지도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도=백재현 기자

## 강진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목 추가 발굴

### 이달 말 품목 업체 공개 모집

강진군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추가 선정을 위해 답례품목 발굴에 나섰다.

22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18일 강진군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기존 선정업체 중 일부의 협약기간 연장해 답례품목 및 공급업체 추가 선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진군은 고향사랑 기부자에게 다채롭고 정성이 담긴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에 품목 선정 후 관련 업체를 모집하는 방식을 변경해 7월 말 답례품목과 업

체를 동시에 공개 모집할 예정이다.

현재 강진군에서 제공하고 있는 답례품목은 23개로 농·수·축산물 7개(쌀, 잡곡류, 파프리카, 건수산물, 한우 등), 가공식품 10개(묵은지, 토하젓, 발효차 등), 공예품 1개(청자), 관광 및 체험상품 3개(푸소 체험권 등), 서비스 상품 2개(강진사랑상품권, 꽃배달 상품권) 등이다.

강진 고향사랑기부제는 강진을 제외한 주소지의 개인(기부자)이 강진군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강진군의 답례품을 받고 이 기부금은 강진군 복리증진을 위해서 쓰인다. 강진군 1호 고향사랑 기부사업 '홀로사는 노인을 위한 클린-업'

이 선정돼 내년에 추진할 예정이다.

기부금의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된다.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 세액공제, 답례품 3만원까지 총 1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희망하면 포털 사이트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검색 후 고향사랑이음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기부하거나, 전국 농협에서 대면으로 기부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강진군청 총무과(061-430-3708)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김윤복 기자

## 완도군, 폭염 대비 취약계층 지원 응급 안전 서비스 등

완도군은 폭염 대응 T/F팀을 구성해 9월 말까지 장애인, 독거노인, 의료급여 대상자 등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T/F팀은 장애인, 독거노인, 의료급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활동 지원, 맞춤형 돌봄, 119와 연계한 응급 안전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인명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으로는 먼저 폭염 기간 동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활동 자제를 당부하고 있으며,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자 108명은 활동지원사가 직접 안전을 챙긴다.

장애인복지관과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냉방기 실내 적정 온도 유지와 응급 상황 관리 체계를 점검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기저질환이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독거노인은 생활지원사와 의료급여 사례 관리사가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무더위 행동 요령(외출 자제, 수분 섭취, 서늘한 곳에 있기)을 안내하고 있다.

만성 질환자의 경우 복약 상황을 확인하고 의료 지원을 통해 건강관리를 돕고 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 상황이 우려되는 주거 취약 가구와 전기료 체납으로 단전, 단수된 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완도=정태영 기자